

大學圖書館에 있어서의 分館制度에 관한 考察

全南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
南 台 祐

□ 목 차 □

- | | |
|-----------------|-------------------|
| 1. 緒 論 | 6. 分館시스템에 미치는 要素 |
| 2. 用語의 定義 | 7. 分館시스템의 諸 類型 |
| 3. 組織體로서의 大學圖書館 | 7. 1 贊反 兩論 및 中庸理論 |
| 3. 1 도서관의 조직 | 8. 結 論 |
| 4. 分館시스템의 發展史 | 參考文獻 |
| 5. 分館의 規模와 主題範圍 | |

1. 서 론

퍼킨스(Perkins)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대학은 4가지의 사명을 띠고 그 존재가치를 구현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1) 지식의 전수를 행동의 원리로 삼는 교육의 사명, 2) 지식의 획득원리로 불리는 연구의 사명, 3) 지식의 응용으로 대변되는 봉사 사명, 4) 이상적인 민주사회를 창출하고, 시범보이는 지적행동의 사명이 그것들이다. 이상과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대학조직중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 대학도서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지적작업을 통해 창출된 이론의 검증을 위해 응용과정을 거치는데 이들의 작업은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분석, 가공, 그리고 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심장부' 또는 그 대학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외침이 대학현장에서 이미 진부하고 공허한 메아리로 울리고 있는 냉소적인 현실은 대학과 학문 그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도서관이 대학에 있

어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면에서 대학도서관의 목적은 대학의 목적과 같은 것이다라는 코베트(E. Corbett)말은 대학도서관의 본질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어서 대학의 3대자원을 든다면 교수, 컴퓨터센터, 도서관을 지칭한다. 일류대학이나 명문대학의 주요한 선별기준중 도서관 시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교육정보원센터(educational information resource center)로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기능을 짐작케 한다.

최인훈은 최근 '화두'라는 작품에서 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시사해준 바가 크다. 도서관은 큰 책이다. 너무 커서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놓아 두는 큰 책이다. 도서관 지붕은 책의 등이고 도서관 벽은 책의 겉장이고, 도서관 문은 이 큰 책의 안 표지이고, 목록은 이 책의 목차이다. 이 집은 아기집(胎)이다. 이 속에서 사람은 사람이 된다. 이 집과 열람자를 닮아서 이윽고 만들게 되는 것이 우주선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다. 우주선과 타고 있는 사람은 열람실과 그 안에서 읽고 있는 사람이다. 지구 본부는 책을 저장한 곳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서들이다. 책-도서관-우주선-지구기지-아기집. 이들은 모두 같은 것들이다. 아기집에도 <어머니>라는 書庫가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아기는 DNA라는 책을 빌려다가 열 달 동안의 독서계획에 따라 읽으면서 자기를 조립해 나간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도서관이라는 정보센터의 주 기능을 요약한 것으로 해석되며, 지적창출의 발원지와 유통 그리고 재창조를 위한 축적의 활동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질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가 없다면, 그 무엇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즉 물질은 형태를 알 수 없게 되고, 운동은 목적을 갖지 못하게 된다. 정보나 에너지 그리고 물질의 구조와 그 이용을 조건지우는 환원불가능한 사회적 요소와 역사적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정보이론가들은 모든 시스템을 구조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정보에서 발견하였다. 그들은 조직화된 시스템의 정보적 구성요소를 찾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의 특징을 설명할 독특한 정보적 분석수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은 거의 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에서 부터 시작되고 그 마무리도 정보의 축적이라는 방법으로 또한 대학도서관에서 끝을 맺는다. 따라서 학술정보

의 발생과 축적의 순환은 대학도서관이 그 알파요, 오메가이다. 정보봉사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흔히 대학도서관에서는 과별도서관 또는 주제별도서관시스템을 적용 또는 응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학도서관의 한 조직의 시스템으로서 분관도서관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2. 용어의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어지는 분관에 관련된 용어들은 유사어 및 동의어가 많고, 또한 용어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톰슨(Thompson 1942, 50-53)은 1942년에 과별도서관(departmental library: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별 또는 세분된 주제별도서관의 개념임)에 대한 용어의 다양한 형식을 설명하고, 초창기의 분관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사적으로 개관한 바가 있다. 최근에 분관도서관(branch library)과 과별도서관(departmental library)이라는 용어는 본래 과별도서관이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동안 '분관도서관'이라는 용어는 공공도서관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처음에 과별도서관은 대학중앙도서관과 연계되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독립된 조직체이어서 단과대학에서 출현하였고 관리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분관은 중앙도서관의 행정적 통제를 받고 있어 그 관련성이 매우 상호의존적이다.

해로드(Harrod 1987)와 영(Young 1983)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의하면 대학에서의 분관을 의미할 경우에는 '과별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다. 영의 과별도서관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도서관시스템에서 특정 학문분야의 정보요구를 원조해주는 별도의 도서관이다. 분관은 중앙도서관에 대한 외연적인 것이며, 또는 중앙도서관에 수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분과도서관(division library)과 참조시키고 있다. 또한 해로드도 "중앙도서관과는 별문제로 하고 한 주제 또는 주제그룹으로 제한한 대학도서관이다. 또한 분관도서관(branch library), 교수도서관(faculty li-

brary), 실험도서관(laboratory library), 사무실도서관(office library), 세미나도서관(seminar library)등으로도 호칭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Library literature(H. W. Wilson)에서는 “대학 및 대학도서관— 과 그리고 분관도서관아래 분관(branch)을 색인하고 있다. 분관도서관(branch library)이라는 용어 또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LISA(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bstract)에서는 “과별도서관 : 대학도서관(Departmental libraries : University libraries)”의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기의 이러한 의미를 분석해 보면 분관도서관(branch libraries)은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분석되며, 특히 학문주제별로 분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중앙도서관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과별도서관(departmental libraries)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관과 과별도서관이라는 용어는 대학의 중앙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는 의미로서 혼용하여 사용된다.

과별도서관이란 교육기관에 있어서 주제별로 장서를 비치,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중앙도서관내에 별도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중앙도서관 건물이외의 별개건물에 위치할 수도 있다. 그 운영은 중앙도서관의 한 부서로 또는 해당학과 의 일부로서 운영할 수 있다. 종합대학에 부속된 단과대학이나 연구소, 직업학교 등의 도서관이 이의 범주에 해당된다.

3. 조직체로서의 대학도서관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합문화에서는 불가피하게 조직을 만들어 내어야만 한다. 수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어느 한 사람이 더이상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직을 구성해야 일을 완수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도서관이라는 조직도 그 조직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유기적인 조직일 뿐이다.

도서관·정보센터의 경영 또는 사명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인도의 문헌정보학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랑가나단(S. R. Ranganathan)의 도서관학 제 5법칙(Books are for use, Every reader his book, Every book its reader, Save the time of the reader,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 5법칙 중 1법칙에서 부터 4법칙까지는 도서관·정보센터의 기능을 취급하면서 도서관·정보센터의 경영과 관리의 특징을 상징하는 정신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 5법칙은 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특성에 관한 법칙이고, 도서관의 계획과 조직화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표명한 것이다. 조직체로서의 대학도서관은 전자의 법칙뿐만 아니라 제 5법칙에 속한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대학도서관은 교육기관의 영혼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펄 벅(Paul Buck)여사는 다음과 같은 명귀를 제시해 주고 있다. 1) 도서관은 지식의 심장부이다. 2)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는 질이 높은 도서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3) 질 높은 교육은 질적 도서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4) 도서관은 우리들의 지적자원으로서 고유적 탐구에 없어서는 안된다. 5) 도서관은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자유로운 마음의 기능화가 그 본체이다(Dongerkerly 1973, 20)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본질은 성장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만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정보센터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형성된 하나의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정보센터의 조직은 정보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고도화, 다양화에 따라 더욱 더 규모가 커지면서 그 조직도 복잡화 된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란 인간의 공동목적 가지고 구성된 결합체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제력을 갖고, 복수의 인간에 의해서 분담되고 그것이 전체로서 하

나의 통일체가 되는 것이다. 왈도(D. Waldo)에 의하면, 조직은 행정의 골격이며, 관리는 행정의 생리이다. 즉 조직은 구조이고 관리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조직과 관리는 상호의존적이며, 독립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은 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형태가 요구되지만 관리는 동적이기 때문에 활동을 수반한다(Waldo 1961, 72)고 조직과 관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사회조직의 기본요소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알렌(L. Allen)은 조직이란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편성해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과정(Allen 1958, 353)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해야 할 작업의 분류와 그 분담을 명확히 하는 일과 조직내의 개인상호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일의 조직형성인 것이다. 드러커(Peter Drucker)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은 보통사람으로 하여금 보통이 아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Drucker 1974, 455)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보통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살리도록 하며, 각자의 장점을 다른 모든 구성원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케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부언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된 개인들의 집단이다. 조직은 개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으로서 대학도서관도 모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합된 개인들의 집단이다.

3. 1 도서관의 조직

도서관·정보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는 내적관계와 외적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도서관·정보센터의 내부적 조직에는 그 목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내부조직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6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직은 형성된다.

1) 기능에 의한 조직으로 기본적으로 4가지 기능상의 조직단위가 있다. 수서기능, 정리기능, 대출기능, 참고기능이 그들이다. 기능에 의한 조직구성에는 업무상의 문

제해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용자도 각 부문의 기능과 활동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 부문간의 업무의 중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 2) 주제에 의한 조직으로 주제별에 의한 부문의 설정은 대규모 공공도서관, 대학, 연구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고 더 세분해서는 법률, 경제, 의학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3) 이용자별조직이다. 주로 직접서비스를 받게되는 이용자별로 조직을 구분하는 것이다. 4) 자료의 종류(형태)별 조직으로 도서관의 규모나 장서량이 많아지면, 자연발생적으로 자료의 종류별부문이 설정된다. 5) 지역별조직이다. 이 조직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이용자군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도서관도 각각 이용자군에 따라서 분관체제를 갖는다.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취하는 형태이다. 6) 관리레벨에 의한 조직이다. 공공도서관의 분관이나 대학의 주제별도서관과 같은 대규모의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는 관리상의 이유로 분관체제로 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내부조직의 유형중 4)와 5)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관시스템에 해당되는데, 4)의 경우는 대학도서관에 5)의 경우는 공공도서관에 알맞는 체제인 것이다.

다음은 도서관·정보센터의 외부조직형태로서 이것은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그 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위원회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므로 공평하고 타당성 있게 일을 처리하려면 그 방면의 전문가, 저명인사들의 의견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의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갖고 집단사고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은 공식조직의 한 유형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비영리적인 봉사조직으로 분류된다. 마틴(Lowell Martin)은 도서관이 갖는 특수한 조직특성을 몇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1)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봉사기관이다.
- 2) 확인이 가능한 봉사나 제품이 아닌 정보를 서비스 한다.
- 3) 공급과 안내라는 양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결합된 것을 의학분야에서는 의사의 사무실과 병원, 약제실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 4)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도 전문적인 봉사를 제공한다.
- 5) 모두가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는 분명한 목표보다는 애매한 목적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 6) 오랜 역사를 통하여 융통성이 없는 구조로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보여 주는 기능과 방법에 대한 축적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 7) 어떤 직원은 '도서를 염두에 두고', 어떤 사서는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과 같은 특징을 보임으로서 양면적인 그리고 때로는 모순되는 방향으로 자원과 이용자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8) 대학과 학교, 시와 같은 모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자체의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 9) 보조적인 역할로 인하여 정치단체와 교원, 이용자로 부터 외부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 10) 상위직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고등교육을 받은 핵심적인 직원을 두게 된다.
- 11) 직업적인 경영자가 아닌 봉사담당직위에서 승진한 전문직에 의해 관리한다.
- 12) 넓게는 지역사회내에서 그리고 모든 모기관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원과 더불어 위상을 정립하고 영역을 개척하고자 한다(Martin 1984, 12-13).

4. 분관시스템의 발전사

분관도서관시스템의 발전사를 19세기 말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주로 미국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별도서관은 대학교가 단위대학으로 분리되어 세분화

됨로서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Hamlin 1981, 171). 최초의 과별도서관의 창설과 확장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들에 대해서 햄린의 분석에 의하면 1) 비효율적이고 비실제적인 중앙도서관의 시설, 2) 미고등교육의 국면과 지침의 변화, 3) 독일식 세미나도서관(seminar library) 등의 영향으로 보고있다. 장서 예산, 시설 등의 부적절성과 과별도서관의 필요성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19세기 4반세기 까지는 대학도서관의 실상은 침체상황이었고, 그래서 거의 이용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소장장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고, 출판년도도 오래된 도서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퇴직성직자들의 기증도서로 채워 졌다. 1880년 이전에는 특수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원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도서구입예산은 거의 전무의 상태였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독립된 도서관건물을 갖지 못하였으며, 일주일에 수시간만 개관하는 조그만한 방에 통합장서를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더우기 직원과 기타 공식적인 도서관교육을 수강한 사람이 근무하는 도서관은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도서관발전에 행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다.

대학등록생들이 시민전쟁이후 10여년동안 극적으로 늘어나자 확장된 시설, 교과과정 그리고 도서관자료들에 대해 기관들이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기관들이 성장함으로써 개별적인 과별도서관들이 설치되어지자 교수들은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입하고, 그들을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비치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장서가 종종 대학도서관과는 별도로 과별도서관의 핵심이 되었다. 그래서 수서에 대한 협동적 노력이 없었으며, 중앙도서관의 협조도 없어 복권구입에 대한 항의조차 없었다.

교수들의 도서구입의 관행은 많은 기관에서 정책화 되었고, 후에는 그 정책이 관례화되기에 이르렀다. 분관을 통괄하는데 사서와 교수들간의 오랜동안의 대립관계를 설명하는 일부분인 자료에 대한 교수들의 연루와 소유권의 관례가 된 것이다. 도서관에 소장되는 도서는 교수들의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것들로 대부분 교수들이 선정·구입하였다.

1876년경에 미국교육의 르네상스기가 시작될 때에도 포괄적인 대학도서관을 원하는 않았다. 고등교육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고전풍으로 회귀되어 라틴·그리스어, 수학, 문학 그리고 과학과 같은 기본주제가 강조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 교과

과정 그리고 교육방법들을 거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일치시키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되었다.

19세기 마지막 4반세기에는 교육이 극적으로 변화하는데, 대학원수업의 강화, 그리고 고전으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학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적절성과 포괄성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것은 하버드대학을 제외하고는 1880년 이전에는 누구도 포괄적인 장서구축에 대한 요구를 한 바가 없었다(Kaser 1980, 43). 필요로 하는 많은 도서들을 제공해 주는 대규모의 대학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과별도서관들이 자기방어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대학 중앙도서관의 불충분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학, 신학, 의과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과별도서관을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Johnson 1977, 26). 이른바 자생적인 기관으로 출발한 분관이라 하겠다.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분관도서관의 설립에 영향력을 미친 것 중 다른 하나는 소위 독일식 세미나도서관이다. 이것은 18세기 독일에서 자생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실험과 실험방법론의 협동, 역사적방법론, 그리고 비교방법론, 요청되는 도서에 직접적접근 등에 대한 교육적인 면을 강조하는 세미나 방법론이다. 교수진들은 도서를 기증하고, 종종 그들의 개인장서까지도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 도서관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1870년대 경에 미국의 경우 미시건대학에서 최초로 채용되었다. 세미나 방법이 미국에서 유행되므로서 독일식 세미나도서관 대응물로 형성된 과별도서관이 일반화된 것이다. 세미나도서관의 다양한 형식에 대해 베이커(Baker 1898, 105-10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앙도서관과 별도의 과 장서, 아주 기본적인 참고도서와 함께 중앙도서관 건물에 있는 세미나 룸, 특정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장서를 소장한 중앙도서관의 세미나 룸이다.

20세기의 분관도서관의 역사는 대부분 시설과 자료를 중앙집권화 하려는 사서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초창기의 과단위의 교수들의 노력으로 분관 도서관이 생성된 것과는 다른 측면이다. 통제하고자 하는 욕심은 학술기관과 도서관 장서가 비교적 소규모일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과별 도서관은 많은 수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사서들은 위치, 통정, 그리

고 도서관구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햄린(Hamlin 1981, 168)에 의하면 “논쟁 거리는 19세기 말까지 잠복하였는데 시설, 학생, 재원, 대학목적과 교수철학의 재교육과 함께 결합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초기의 관심사는 과별도서관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단순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통합된 장서에 대한 욕구가 주 요소가 되었다.

분관도서관수의 증가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1) 도서예산 통정의 결함, 2) 도서관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3) 안정성의 결함, 4) 서지적접근의 불완전 등이 다. 1896년에 시카고대학교 교수위원회에서 발행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1) 단일반을 위한 준비로 5개이상의 도서관과 협의할 필요성, 2) 캠퍼스에서 교통난의 부절제성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의 이중성과 과별장서의 계속적인 손실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학자들이 그들의 전공에 대한 무지, 부적절한 직원서비스의 수준, 일반 참고도구의 부족함 등에서 자료를 무시하는 경향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언급하는 것은 무시하고 있다. 분명한 해결점은 과별도서관의 중앙집중화이며, 또는 최소한 장서의 행정적 통제를 가하는 길이다.

2차대전 이후에는 또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른바 사서들은 완전한 중앙집중식 도서관을 원하는 반면에 교수들은 반대하여 상호 갈등을 타협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소위 효과적인 행정적인 통제와 자료에 대한 개선된 접근점을 제공해 주는 대단위(사회과학, 인문과학, 과학 및 응용과학)내에 소규모의 주제장서로 통합하는 주제구분 계획도서관이다. 이러한 계획에 중앙도서관은 항상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구분을 완성하였으며, 종종 별도의 과학도서관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분관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었다.

구분계획은 4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1) 기술적 서비스와 고급행정을 제외한 도서관 기능들이 주제분야(예; 사회과학, 인문과학, 비지니스와 경제학, 과학 및 기술과학)로 구분하는 것, 2) 과별 또는 세미나도서관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유롭게 개방된 자료접근이 절대적일 것, 3) 직원은 가능한한 주제전문가이어야 한다. 4) 분열된 교과과정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일반교육을 지원하는 것(Blanchard 1953, 243)으로 분석하고 있다.

1939년에서부터 1974년에 이르기까지 주제구분배열법의 출현, 발전 그리고 쇠퇴에 대해서는 1977년에 존슨(E. R. Johnson)이 그러한 경향을 상세히 기술해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1947년에서 1952년 사이에 24개관이 과별 또는 특수도서관의 효과적인 행정적 통제를 재건하려는 분관라인중에 스탠포드대학도서관의 재조직의 기술이며, 2) 네브라스카대학교에서 분관계획의 응용적인 고려와 연속적인 수정, 3)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그리고 브라운대학도서관들이 분관계획을 구상하는데 과별도서관의 시험(Blanchard 1953)등이다.

1920년대 이래에는 상기의 이러한 경향들이 가능한 한 통합을 시도하였지만, 새로운 많은 분관도서관들이 2차대전 이후 도서관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압력으로 굳어진 상태였다(Heron 1962, 223). 이 세기에 대학도서관 발전의 전체적인 패턴은 19세기말 이전에는 중앙도서관이 거의 없었던 것에 반하여 선택된 학술부서를 위한 별도의 장서를 소장한 중앙도서관이 탄생된 것이다.

5. 분관의 규모와 주제범위

학술도서관시스템의 가장 광범위한 특성 중 하나는 서비스가 중앙집중화되는 수준이다. 대학캠퍼스의 규모와 지리적인 거리가 도서관자료의 이용성 및 유용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집중화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별도서관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과 분리된 건물들이 신축되었다. 이들 중 많은 도서관들이 학교 교수진이 교육용장서를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확보하면서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장서의 규모가 확대되고 서비스와 정리의 문제가 증대되면서 이 도서관들은 완전한 도서관업무를 요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전문직사서의 공식적인 도서관업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도서관들은 학과의 요구와 대학당국의 정책에 따라 중앙도서관의 관리범주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 즉 각참고형 자료들로 구성된 실험실이나 부서별장서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규모의 주제별도서관이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내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에 있어 주제별도서관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1968년도 조사에 의하면 총 장서수가 100만권이 넘는 39개대학들의 경우 평균 14개의 주제별, 단과대학, 직업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이 있는 대규모의 대학도서관들은 분관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버드대학 도서관은 미국내 도서관들 중 가장 광범위한 주제별분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첫번째 분관은 1817년에 개관된 법학도서관인데, 거의 희귀한 경우에 속하는 예이기는 하지만, 하버드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120개관이 넘는 주제별 또는 과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60개관 이상이 과별, 대학별, 전문교육용 도서관들이다. 이들 분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종합목록에 의해 서지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집정책에 따른다.

연구도서관 협의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y)의 경영연구소(Office of Management Studies)에 의해 수행된 서베이에 의하면 93개의 회원도서관이 1008개의 분관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10.72개의 분관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두 개의 도서관은 분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반면에 다른 3개관은 과도서관을 통제하지 않고 시작한데도 있었다(Branch Libraries in ARL Institutions 1983, 1). 전형적인 과별도서관의 장서수는 10,000권에서 50,000권 사이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단과대학의 주제별도서관들은 그 장서규모가 100권에서 25,000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목록을 주제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 동시에 비치하여 일반적으로 중앙도서관의 재정과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분관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할지의 여부는 모기관의 목적, 예산, 규모, 장서의 수, 지리적인 여건, 주변의 환경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도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란 어렵다.

한편, 분관도서관에서 취급하는 주제의 범주문제인데, 이 또한 모기관의 목적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난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나 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분관도서관은 주제 A(aviation; 항공학)에서 Z(zology; 동물학)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수의 주제를 포괄한다. 학문이 지니고 있

는 주제의 수에 따라서 분관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따른 가장 적절한 수만큼의 분관을 가지게 된다. ARL의 서베이에 따르면, 대개 일반적인 주제도서관들은 음악(49), 수학(44), 공학(39), 물리학(38), 화학(37), 비즈니스(34), 건축학(33), 그리고 지질학(31)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분관에서는 한 주제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아이오와 대학교도서관은 화학-생물학도서관, UCLA대학의 공학-수학도서관, 미네소타대학교의 역사-정치-철학도서관, 텍사스대학교의 교육학-심리학도서관, 일리노이대학교의 교육학-사회과학도서관 등과 같은 두개 이상의 학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매츠(Metz 1983, 98)는 ARL에서 데이터로 분석한 분관도서관의 주제범위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도서관연감으로 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ARL의 서베이와 주제장서의 빈도측면에서 거의 대등한 결과가 추출되었다. 그의 분석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분관도서관시스템으로 적용된 예는 매우 희귀하다는 것을 발견한 반면에 과학도서관의 수는 매우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규모의 학제간분야들의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주제별장서의 범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학을 제외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분야와 같은 심도있는 연구용장서는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주제별도서관에서는 주로 수업용교재들을 소장하는 경향이며, 자연과학 및 응용과학에 있어서는 일반장서에서 오래되어 폐기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분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분관에 대한 주제범위 및 규모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관 또는 모기관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6. 분관시스템에 미치는 요소

주제별분관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 되고, 학문이 고도로 세분화되고, 또한 학제간학의 연구로 인한 주제별 분관시스

팀의 효용성이 증명되고, 그리고 학제간학의 연구의 경우에는 복수주제의 분관도서관의 응용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현재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분관시스템의 규모에 있어 증식과 확장을 해가면서 복잡한 중앙도서관의 과중한 부담이 이제는 광범위하게 펼쳐진 장서와 업무체제로 인해 분관도서관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분관화와 학제간 연구를 어렵게 하는 장서의 분산사이에서 만족스러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정과 정보전달을 위한 항구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분관도서관들이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중복도 감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당국의 예산상의 추가비용의 증액과 적절한 수준의 직원 배치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조직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으로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맥넬리(McAnally 1959, 449-452)에 의하면 특정 도서관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몇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1) 지식확장과 세분화의 증가, 2) 기술적 발전, 3) 증가된 등록규모, 4) 물리적 시설, 5) 교과과정과 연구분야, 6) 대학의 재정적 상황, 7) 시설, 행정가, 비학문적 직원의 확장을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는 도서관과 연관된 영향력으로는 재정적 능력, 규모, 자료의 다양성, 기존직원의 자격(기타 직원의 유용성과 함께), 도서관의 역사, 아이디어, 도서관의 상황, 통치적 구조, 도구, 부서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브르노(J. M. Bruno)는 대학교의 통치적 구조, 재정적 자원, 도서관 규모, 전문직 사서수 등이 분관도서관의 형태와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Bruno 1971, 316).

한편 분관도서관이 요구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로 요약된다. 전체적인 학술집단과 함께 분관도서관의 1차적인 고객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1)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교육적 철학, 기관의 목적, 그리고 도서관서비스 역할의 연구, 2) 계획된 분관도서관의 서비스의 기술, 3) 구현된 도서관서비스의 기술, 4) 계획된 분관서비스와 기존도서관서비스와의 비교분석 등이다(College Reserch Libraries News 1975 9, 281-283). 또한 러셀(R. E. Russel)도 분관을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재정적 유용성, 2) 자료접근에 대한 명백한 요구, 또는 중앙도서관에서는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한 명백한 요구, 3) 중앙도서관의 위치에 대한 분명한 부정적 효과, 4) 제안된 분관도서관을 위한 적절한 자료의 소장이다(Russel 1974, 28).

또한 새로운 분관도서관을 계획할 경우에는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 웰시(Walsh 1969, 211-216)에 의하면 분관도서관을 새롭게 계획할 시에 필요한 조건 및 구축을 7가지로 분석하여 열거해 주고 있다.

- 1) 중앙도서관이 주요장서를 소장할 수 있는 정도
- 2) 이용자의 요구성
- 3) 부문별 정책
- 4) 기존건물의 공간의 유용성 및 신축을 위한 공지의 유용성
- 5) 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는 유용한 재원
- 6) 대학의 일반적 정책
- 7) 도서관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도 및 인식도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2가지의 비평적 요인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장서규모와 시설의 유형(별도의 신건물, 신건물의 공간, 기존건물에서의 혁신적인 공간)이다. 반면에 이들 변인들은 계획과정에서 4가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1) 공간의 유용성, 2) 신장성, 3) 도서관영역과 연관된 공간, 4) 융통성 등이다. 또한 이 중 공간을 계획하는 데에는 4가지 비평적 분야를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이른바 장서의 규모, 이용자, 서비스분야 그리고 직원의 작업공간이다(Muller 1969, 141-42).

7. 분관시스템의 세 유형

대학도서관시스템을 위한 3가지 기본적인 조직패턴이 있는데 분관이 없는 중앙집중식 도서관, 분산식, 그리고 여타의 시스템이다(Mount 1975, 14). 후자의 예로서는 중앙도서관내의 분관이며, 예컨대, 한 층에 완전하게 배치한 내부의 과학도서관

이다. 분산시스템은 몇 개의 분관을 가진 중앙도서관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ARL 도서관 중 68%가 중앙집중식 도서관이며, 32%가 분산식 도서관 시스템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과별도서관의 행정적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웰시(Walsh 1969, 211)에 의하면 분산도서관 시스템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1) 자료유형과 형식에 기초한 경영중심적 패턴(지도자료, 회귀서, AV자료, 그리고 비서구적 언어자료), 2) 이용자 그리고 주제중심적 패턴으로 즉 과별 또는 분관도서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화는 임의적이고 편의성에 기초한 구분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조직은 공식 그리고 비공식 조직체로 구성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바탕을 둔 일차적인 분류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쇼햄(Shoham 1982, 175)은 분산형식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열거하고 있는데 1) 자료의 형식, 2) 이용자의 상태, 3) 주제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그는 도서관시스템에서 몇가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1) 분산식 기술서비스, 2) 행정적 분산식, 3) 수정된 물리적 분산식, 4) 완전한 물리적 분산식이다.

미국 대학도서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성하여 대학구성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그 체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유형은 대학전체 도서관인 중앙도서관(main library)과 각 단과대학별 도서관으로 구별되어 있는 체계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학도서관은 대학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과 '단과대학도서관'으로 구성된다. 이들 도서관간에는 유기적인 대학도서관상호대차(inter-college library system)가 마련되어 있어 중앙도서관과 단위도서관과의 상호연관체제가 밀접하여 정보자원관리에서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경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도서관은 학부생 위주로 이용빈도가 높으며, 단위도서관은 전공학생 또는 대학원학생들의 정보센터로서 활용되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학부도서관(undergraduate library)과 대학원도서관(graduate library) 그리고 단과대학과 연구소중심 도서관의 3원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학들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경우와 미시건대학 등이 이 경우

이다. 학부도서관은 전적으로 학부생들을 위한 도서관시설이며, 대학원도서관은 보다 세분화된 주제영역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학원도서관은 전공잡지와 마이크로피쉬, 컴퓨터네트워크, 각 대학도서관과의 네트워크체계, 전 세계와 주제영역별 전문기관과의 연계체계 등이 갖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것은 OCLC, RLIN, WLN, UTLAS 등이 자료공동이용(resource sharing)을 위한 도서관상호대차시스템(inter-library loan system)이다.

세번째 유형은 대학도서관체계와 지역사회중심의 분원지역체계이다. 지역사회의 경우는 중앙도서관을 두고 지역이나 거리에 따라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한된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하지 않는 자료나 특수영역의 자료, 그리고 향토자료, 지역에 관련된 지역정보자료들을 대학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네번째 유형은 대학도서관내에 주제영역별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체건물내에서 층별로 주제영역별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와 확대건물로 계열별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대개의 경우 주제영역별 층내에 참고정보자료실, 복사서비스실, 교육서비스실, 컴퓨터실이 병설운영되고 있다. 대학도서관내에 주제영역별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보활용실(main resource room)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번째 유형은 대학의 중앙도서관(main library)과 학과별도서관(departmental library)유형이다. 중앙도서관에는 기본적인 정보자료를 위시하여 공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 및 2차 자료와 3차 자료원을 충분하게 소장하고, 과별도서관과는 긴밀한 연관관계를 유지하여 통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도서관은 학과의 부속도서관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학과의 영역아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과별도서관은 대체로 그 학과의 교수연구실과 세미나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상적이다. 또한 학과의 특성과 관련된 전문학술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연구의 중요한 장은 자연스럽게 과별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상기의 도서관유형중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네번째유형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으로 구성인원의 소수화, 소장 자료의 교육부의 수치상 기준소장, 공간적 문제점 등을 해결하지 못한 편법으로 최상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자료문제로 예산상의 한계로 자료소장의 빈곤으로 학과 도서관으로 구분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점 때문에 주제영역별 도서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 1 찬반 양론(Pros and Cons) 및 중용이론

30여년전에 매카프(Keyes Metcalf)는 하버드대학도서관에 대해서 쓴 것 중 분산화의 찬반양론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 논의는 아직까지도 반복할 가치가 있는 이론이다.

(1) 분산화를 선호하는 입장

- 1) 소장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자료를 가장 간편한 위치에 비치할 수 있다.
- 2) 대학도서관시스템의 지원의 기초로서 확대할 수 있다.
- 3) 그들의 도서관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다양한 부서에 베풀 수 있다.
- 4) 주제단위내에서 장서를 분류할 수 있으며, 특수도서관방법으로 과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2) 분산화의 반대입장

- 1) 분산화는 종종 불필요한 복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좋은 예로 하버드대학은 생물학의 수개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 2) 과별도서관에서의 정책은 직원조직, 급여, 그리고 도서구입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대학도서관의 그것들과 함께 공조를 취하여야 한다.
- 3) 과별도서관들은 특정사서 또는 대학원의 장의 관심과 승진능력을 통해 현상과

도를 위한 준비기회를 주게 된다. 그 때에는 경비가 이중으로 들게 되며, 지출 비용의 계속적인 삭감은 가까운 장래에 이미 막대한 량의 자료때문에 곤란하게 된다(Metcalf 1950, 47).

상기의 분산도서관의 장점으로 열거된 것에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부언하면, 1) 효과적인 개인적 서비스, 2) 이용의 용이성, 3) 안전성의 심각한 위협없이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 4) 자료 이용의 증대등을 들고 있다. 한편 분산화의 단점에 부연적인 설명으로서는 1) 높은 행정적 비용, 2) 시설과 직원의 이중성, 3) 행정통제의 축소, 4) 문제의 보안성과 접근성, 5) 카드목록과 같은 기록류의 이중성, 6) 과별도서관 밖에서의 불편함, 7) 한정된 시간, 8) 불충분한 직원배치, 9) 학제간연구의 방해, 10) 자료보관의 제한성 등이다(Bruno 1971; Cain 1950; Cooper 1968; Downs 1967; Immelman 1967; Sontag 1977).

상기의 찬반양론에 대해 공평하게 비교연구를 시도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시도한 사람은 밀러(R. A. Miller)인데, 그는 접근성, 비용, 효율성, 장서수의 적절성, 도서의 이용성, 주제분야의 상호연관성, 교육적 중요성을 시험하였다. 그는 효과적이고 적합한 서비스가 중앙집중화와 분산화의 선호자 양자의 목적이며, 과별도서관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Miller 1939, 75).

상기와 같은 밀러의 입장을 선호하는 학자군들이 있는데, 브르노, 마론(H. Marron), 매카프, 그리고 손택(H. Sontag)등이다. 이들은 항상 집중화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 두가지 관점에서 양자의 이론을 가지고 전개시켰다. 예컨대 왓스(T. D. Watts)같은 학자는 분관도서관의 통합을 강력하게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 때문이었다. 1) 증식되는 지식의 상호의존성, 2) 분관도서관의 불편함, 3) 장서의 고립, 4) 경비, 5) 부서관 커뮤니케이션의 장애(Watts 1983, 196)를 열거해 주고 있다. 고전적인 언급으로 셰라(J. H. Shera)는 분산도서관을 위해 7가지의 강력한 논의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1)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편의성, 2) 자료와 부서간 학제간적인 연관성, 3) 경제적 혜택, 4) 개선된 서비스, 5) 개선된 장서, 6) 자동화, 7) 시간과 노력의 절감(Shera 1961, 42-43)등을 언

급하고 있다

8. 결 론

이상에서 대학도서관의 한 시스템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관도서관 시스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분관식 또는 중앙집중식을 채용할지의 여부는 모기관 목적에 따라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선호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가변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 역사적 발전단계를 보면 분관식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그리고 다시 분관식으로 되풀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양자의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변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 분관의 발전은 독일의 세미나도서관이 응용으로 발전되어 현재는 가장 활발한 분관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人品을 논할 때 흔히 그릇(器)에 견주어 크고 적음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공자의 사상중 논어의 君子不器에서 유래된 말이다.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만, 특정한 기능과 지식에 얽매어 전체적인 식견과 판단력이 결여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서 군자는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全裁者(generalist)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그 본뜻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군자는 일면만의 전문가가 아니고 전재자이어야 한다(The wise man is not specialist, but generalist).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촉망받고 있는 정보전문가로서 '라이브러리언(librarian)'은 군자불기와는 어떤 관계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고려해 볼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 그릇의 성능은 일면의 전문가가 아닌 전재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언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첫째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용자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나의 포용력이다. 이는 라이브러리언이 능력의 그릇으로서 전재의 위치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포용이라는 그릇은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어떻게 처리(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서비스)하느냐의 능력은 인터뷰나 커뮤니케이션의 고급기법으로 조정하고 적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릇의 의미이다. 이는 適書(right information)를 適者(right user)에게 適時(right time)에 서비스해 주는 도서관 존재의 본질과 연관된다. 셋째, 지적 작업의 창출에 얼마만큼 견디어 내느냐의 인내력, 이 세가지 역량이 결국 라이브러리언 그릇의 대소 즉, 불기의 평가요소라고 생각되며 또한 상기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전재자(generalist)로서 자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라이브러리언은 특정 주제분야에서의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그 주제분야내에서만 정보를 서비스해 주는 이른바 전문가(specialist)가 아닌 중세도서관의 1인도서관시스템(one-person-library)로의 회귀성을 이 시대는 요구한다. 이 시스템이 바로 본 논문에서 주제로 삼았던 분관도서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주제별의 장서구축과 철저한 정보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사서자격증을 획득한 라이브러리언은 한 측면(주제)에만 정통해서는 안되며, 정보센터의 전체적 입장에서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재자이어야만 한다. 이는 '살아 있는 백과사전'(living encyclopedia) 또는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walking encyclopedia)로서 전재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보사회가 될수록 1인도서관시스템(one-person-library)의 등장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one'이란 전재자로서 주제전문가(subject specialist)를 지칭한 것이다. 그러기에 라이브러리언은 大器이어야 하며 더구나 쓸 자리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다양해지는 정보센터의 환경에서 보면 全載者로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적시에 적자에게 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specialist의 임무가 아니며, generalist의 직능이다. 사회가 다변화되어 갈수록 specialist의 기능이 요구되지만 적시에 적자에게 적서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언은 반비례로 generalist가 되어야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요약컨데 정보의 수집에서부터 가공, 처리, 축적, 제공의 과정은 단절된 절차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일련의 계속된 절차에 의한 정보서비스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주제별 분관시스템으로의 전환은 one-person-library의 개념이 강하므로 전재자적 정보사서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에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의 개정은 물론 사서직들의 인식의 대변화도 요구된다. 고도의 정보사회가 될수록 라이브러리언은 반드시

시 전재자(generalist)인 君子不器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너무 커서 쓸 곳이 없는 大器는 쓰지 못하는데 쓸모가 있다. 無用으로 爲用이란 말이다. 정보가 담겨질 그릇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담아 소화시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언은 君子不器이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Allen, L. A. (1958). Management and Organization. New York, McGrawHill.
- Baker, G. H. (1898). Relation of seminary and department libraecies to the general university library. Library Journal 23.
- Blanchard, J. R. (1953). Departmental Libraries in divisional pla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14.
- Branch Libraries in ARL institutions (1983). ARL SPEC Kit 99. Office of Management Studies, Association of Reserch Libraries, Washington, D. C.
- Bruno, J. M. (1971). Decentralizational in academic libraries. Library Trends 19.
- Drucker; P. F. (1974). Management: Tasks, Reponsibilities, Practies. New York, Harper & Row.
- Hamlin, A. T. (1981). The University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Its Origins and Development. Univ.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 Heron, D. W. (1962). The centrifugence of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 Reserch Libraries 23.
- Ibbotson, L. T. (1925). Departmental Libraries. Library Journal 50.
- Johnson, E. R. (1977). Subject-divisional organization in America university libraries, 1939-2974, Library Quarterly 47.
- Kaser, D. (1980). Collection building in American universities. In University Library History: An International Review. Clive Bingley, London.
- Martin, L. A. (1984).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ibraries. Mctuchen, N. J. Scarecrow Press.
- McAnally, A. M. (1951). Co-ordinating the departmental library system. library Quarterly 21.
- Marron, H. (1963). Science libraries: Conssolidated/ departmental? Physics Today 16.

- Metcalf, K. D. (1950). Harvard faces its library problems. In *The Place of the library in a University: A conference held at Harvard University 30-31 March 1949*, Harvard University Library, Cambridge, Massachusetts.
- Metz, P. (1983). *The Landscapes of Literature; Use of Subject Collections in a University Library*.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hicago.
- Miller, R. A. (1939). Centralization versus decentralization. *ALA Bulletin* 33.
- Muller, R. H. (1969). Master planning for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Trends* 18.
- Russell, R. E. (1974). Branch library policy statement. *The Library Scene* 3.
- Shera, J. H. (1961). How much is a physicist's INERTIA worth? *Physics Today* 15.
- Shoham, S. (1982). A cost-preference study of the decentralization of academic library services. *Library Research* 4.
- Sontag, H. (1977).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library and departmental libraries at "old" universitie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Developments in Collection Building in University Libraries in Western Europe* (W. R. H. Koops and J. Stellingwerff, eds.). Verlag Dokumentation, Munchen.
- Thompson, J. (1979). *An Introduction to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3rd ed. Clive Bingley, London.
- Waldo, D. (1961).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Random House.
- Walsh, R. R. (1969). Branch library planning in universities. *Library Trends* 18.
- Watts, T. D. (1983). A brief for centralized library collections. In "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A symposium."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9.
- Wells, D. A. (1961). Individual departmental libraries vs. consolidated science libraries. *Physics Today* 14.